

■ 설날 가정 예배 ■

<가급적 설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이 때 가족 중 믿음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예배로의 초대 인 도 자

설날을 맞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시 147:1-3 다 함께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찬 송 552. 아침 해가 돋을 때 다 함께

교 독 94. 새해(2) 다 함께

기 도 가족 중

성 경 봉 독 막 1:29-31 인 도 자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말 씬 손을 잡아 일으키라 가족 중

찬 송 559.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다 함께

주님의 기도 다 함께

<함께 나눌 말씀>

“손을 잡아 일으키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들과 각지에 흩어져 사는 식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첫 제자들(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고,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말씀과 귀신 쫓음은 별개의 사역이 아니라는 걸 은연중에 알려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성취될 사건이요, 사랑의 수고는 말씀의 완성입니다.

일상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야말로 거룩한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시도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보기 가장 좋은 장소에 대해 오늘의 성경 말씀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집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했던가요. 집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지 않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안식일에 회당 방문을 마친 예수님 일행은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병이 나은 장모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인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할 아름다운 본을 보여 주신 겁니다. 다가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입으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두 발과 손을 사용하여 만들어내야 할 사건입니다. 이걸 본 유대인이라면, 안식일 날 집에서 움직여 일으키라니 이 무슨 불경한 짓인가 할 테고, 삶에 지친 일부 한국인들은 집에 들어와서까지 수고를 다 해야겠나, 식구들끼리야 서로 사랑하는지 다 아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하나,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집이야말로 다정한 접촉을 하며 사랑의 수고를 다 해야 할 공간임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몸이 나았고 바로 예수님 일행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제대로 응답한 첫 모범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려드는 사람들로 어찌해야 하나 당황하고 있는 베드로와는 정말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나이 든 한 여인이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삶이란 어찌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치고 답답합니다. 물 먹은 솜이불처럼 짓누르는 일상의 무게를 이겨낼 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옆 식구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잡아 일으켜 주십시오. 서로의 사랑을 몸으로 표현하며 썩스럽지만 의지가 되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정의 일상에서 구현하며 멋진 낙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